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 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794호 ihonam@naver.com 2019년 10월 14일 (음력 9월 16일) 월요일

"군공항 이전은 별개"…시-도 '파열음'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달라"

'광주' 포함된 무안공항 명칭변경도 미온적 반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합의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협력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키로 한 시·도 지사의 합의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공감대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광주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입장 같다"며 되묻자, 김 지사는 "(민간공항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다"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 해야한다. 무조건 상생하자는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뤄진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합의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확실히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유력 이전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무안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방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최근 광주시가 국제행사 유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무안공항 명칭에 광주가 포함된 명칭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양 측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 반대만 주장하지 말고 주민설명회 등 소통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하자, 무안지역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후보지역 지자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남의 4개 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과는 달리 오는 2021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관계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광주-무안공합 통합에 대비해 주요 준비 과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광주와 목포 지역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 1일 12회씩 전용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대형항공기 취항에 대비해 기존 활주로를 2800m에서 3200m로, 400m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여객터미널도 통합에 대비, 134억원을 들여 2395㎡를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증축(630㎡)하거나 철거(757㎡)한다.

여객터미널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공항공사 무안지사와 국토부 무안출장소 등 일부 사무실과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사무실이 들어설 관리동이 신축된다.

또 현재 무안공항 장비고 공간 부족으로 화물터미널 일부 공간을 사용중인 상황을 감안, 장비고를 신축하고 기존 장비고는 리모델링을 통해 화물터미널을 복원할 계획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1871면의 주차장은 1·2단계로 나눠 1760여면을 추가하고 자동 무인화 및 중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상 전환을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항 통합에 대비한 각종 공사를 대부분 2021년 말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활주로 연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광주 공항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국토부 사업 공모 선정돼 국·시비 150억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더불어 상생하는 월곡 고려인마을' 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구도심의 낡은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과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광산구는 2023년까지 총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곡2동 고려인마을 안팎을 새로 단장한다.

구체적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어울림 플랫폼 마련 △취약계층과 이주민 나눔하우스 설립 △글로벌 테마 마을 조성 △생활환경 정비 △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을 추진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교육과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도시재생계획에 반영한 노력이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며 "선주민과 이주민, 광산구와 도시전문가가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임형택 기자

"쫄깃한 맛 일품" 보성 벌교 꼬막축제 오는 31일 개막

벌교읍서 태백산맥 문학제도 함께 열려

보성군은 31일부터 4일간 벌교읍 일원에서 제18회 벌교 꼬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꼬막 축제는 소설 태백산맥의 주무대인 벌교읍에서 열리는 만큼 '태백산맥 문학제'와 함께 펼쳐진다.

축제의 첫 날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벌교 천변 주무대에서는 대형 꼬막 비빔밥(2000인분) 만들기와 미스트롯 출연진 축하공연, 불꽃쇼가 준비된다.

갯벌 체험장에서는 레저뻘배 타기체험,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둘째 날에는 꼬막경매, 꼬막까기, 꼬막 던지기 경연, 꼬막가요제 등이 진행되고 셋째 날에는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정래 선생과 함께 태백산맥 주무대 투어와 인문학 토크쇼, 팬 사인회를 통해 낭만 있는 문학 기행을 할 수 있다.

또 청정 갯벌을 십분 즐길 수 있는 레저뻘배대회가 이날 개막한다.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에서부터 갯벌 달리기, 갯벌 속 보물찾기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날인 11월3일에는 갯벌 체험 프로그램과, 황금꼬막 이벤트 추첨, 꼬막 요리 경연대회, 채동선 콩쿠르, 천상불꽃쇼 등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꼬막 시식·요리 체험, 황금 꼬막 잡기, 꼬막구이터(바베큐), 문학축제 스탬프 투어, 소설 '태백산맥' 필사본 쓰기, 벌교 갈대밭 투어 등이 있다.

벌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벌교꼬막에 대해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